



전주고등학교 농구부가 22일 전남 해남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열린 제60회 전국남여 춘계연맹전 해남대회 남고부 결승전에서 휘문고와 경기를 펼치고 있다.

### 전주고 농구부, 고교 농구 최강자 재입증

## 5년 만에 춘계연맹전 정상 탈환

전국 남여 춘계연맹전 해남대회서 '우승' 휘문고과 남고부 결승전서 71-66으로 이겨

전주고등학교(교장 김정기) 농구부가 고교 농구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2일까지 전남 해남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열린 제60회 전국남여 춘계연맹전 해남대회에서 전주고가 우승을 차지했다. 전주고는 2018년 춘계연맹전 우승 이후 5년 만에 또다시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토했다. 22일 열린 남고부 결승전에서 전주고는 휘문고를 71대 66으로 이기고 우승컵을 거머쥘었다. 양팀은 3쿼터까지 50-50(20-20, 13-16, 17-14)으로 팽팽하게 맞섰고, 4쿼터 역시 득점을 주고받으며 접전을 펼쳤다. 하지만 전주고는 경기 막판 박아베스의 결정적

인 3점슛 2방과 진현민의 폐기 득점으로 승부를 갈랐다. 전주고는 이날 박아베스가 24점, 12리바운드를 기록했으며, 김상복도 19점을 보태 서정구가 21점, 16리바운드로 분전한 휘문고를 따돌렸다. 남자 고등부 최우수선수에는 진현민이 뽑혔다. 앞서 마산고 여수화양고, 김해 가야고와의 예선(E조)에서 조1위를 차지한 전주고는 결선 대진 추첨에서 8강 직행의 행운을 누렸다. 8강전에서 전주고는 송도고를 112-96으로 이기고 4강에 진출했으며, 준결승에선 용산고를 76대71로 꺾었다. /김재훈 기자



전남 해남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열린 제60회 전국남여 춘계연맹전 해남대회에서 전주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과 김정기 전주고 교장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서학

## Ground Seohak

Exhibition & Art Fair

서학아트스페이스 2023. 3. 23 ~ 5. 10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7  
아트갤러리 전주 2023. 3. 23 ~ 4. 15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 (전주아트센터)

## ‘전북체육 역사기념관 건립’ 총력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단체장 면담 등 전방위 활동 나서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가 전북 체육인들의 숙원인 '전북체육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정강선 회장이 전방위 활동에 전념 나서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정강선 회장과 정강훈 군산시체육회장 등은 김임준 군산시장을 만나 전북체육 역사기념관 건립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 만남은 체육 역사기념관 건립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정강선 도체육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이뤄졌는데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학예사 채용, 체육 유물 수집 등 다각적인 활동에 더불어 건립을 위한 부지와 예산 확보에 주력하기 위함이다.

이날 정 회장은 역사기념관 추진 배경에 대해 강 시장에게 설명한 뒤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현 군산상일고) 등 체육 역사와 전통이 깊은 군산시에



22일 김임준 군산시장(사진 왼쪽)과 면담을 하고 있는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게 부지 제공 등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역사기념관이 건립될 경우 문화 콘텐츠로 활용 관광자원으로 부각되는 동시에 스포츠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도 체육회는 역사 기념관을 단순히 체육 유물을 수장하고 전시하는 공간이 아닌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의 첨단 기술을 비롯한 체

험활동이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곳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 중이다.

한편 전북은 신준섭(복싱), 유인탁(레슬링), 김동문(배드민턴), 전병관(역도), 박성현(양궁), 임미경(핸드볼), 김이람(빙상) 등 다수의 스포츠 스타를 배출했고 동계유니버시아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ITFA U-20 월드컵 등 국내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러나 전북 체육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시설은 없는 상태이다.

정강선 도체육회장은 "체육역사기념관이 건립될 경우 전북 체육의 긍지와 자존심을 집대성하는 후대에 물려주는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군산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군산시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강선 도체육회장은 도내 시·군을 직접 돌아다니며 체육 역사 기념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뉴스

## 군산시, 새만금마라톤 성공 추진 만전

군산시가 대표 스포츠 이벤트인 2023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개최를 앞두고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시는 유관기관과의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준비상황 보고회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참여자와 시민의 안전확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장비, 환경정비, 교통통제 홍보 등 성공적인 대회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구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지속 가능한 친환경스포츠 실천대회로 치러진다. 예스에코(Yes eco)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대회장 내 텀블러 사용하기, 쓰레기는 퇴거하기, 분리수거 동참하기 등 캠페인에 동참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Eco Player 상을 수상해 시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재활용 가능한 물품과 친환경 제품, 환경 경영시스템이 있는 기

업제품 등을 적극 활용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스포츠 실천대회로 추진된다.

또한 올해 여름 치러질 2022 제19회 한겨울 아시안게임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진행되는 대회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엘리트 선수들의 열띤 경쟁이 예상된다.

대회장 내 부스에서는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통해 심폐소생술 체험존과 캠페인 스티커 및 기념품 배부가 진행되며, 국립군산검역소에서 진행되는 감염병예방 홍보관 등 유관기관 및 단체들의 다양한 홍보·체험관 운영으로 참가자들과 시민들에게 축제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